

韓國知的所有權學會소식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SOCIETY (KIPS) NEWS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김용환 발행처 : 한국지적소유권 학회 738-4506
732-6336

“韓國知的所有權學會”創立

1985년 下半年부터 大學教授와 法律實務家 그리고 知的 所有權과 관련이 있는 各界 專門家 10여명이 본학회를 設立하기 위한 發起모임을 거듭한 바 있다. 이들은 現在 著作權 特許權 기타 工業所有權마다 그 어느 한 分野에 專門의 研究를 목적으로 크게 功獻하는 學會들도 많고 또한 知的 所有權과 관련되는 現業界에 종사하는 分들이 公쳐서 組織한 各種 利益團體의인 協會도 다수 존재하여 積極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韓美間의 무역마찰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특히 包括적으로 知的所有權 문제가 가장 중요한 經濟的 文化的 科學的 爭點으로 등장한 절박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단체를 발족하여 능동적이고 국제적인 사업수행은 물론 研究方法와 範圍에 있어서도 좀더 깊이 있게 立體的인 연구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의 一致를 보았다.

그리하여 知的 所有權과 관련된 創作 活動이나 實務에 종사하는 分으로써 우리나라의 未備한 現實을 걱정하고 이와 같은 趣旨의 學會를 發足할 必要性에 共感하는 여러 인사들이 1986.1.25 서울 종로구 당주동 소재 大韓辯護士會館에 모여 韓國知的所有權學會의 創立總會를 개최하였다. 總會에서는 간단한 수정을 거쳐 會則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會長團을 選任한 뒤 任員陣 構成 기타 나머지 사항은 會長團에게 委任하였다. 또한 創立 紀念으로 서울法大 黃迪仁 教授가 著作權保護에 關한 강연을 하였다.

學會의 名稱에 關하여서는 韓國知的所有權法學會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학회는 法理的 研究뿐만 아니라 隣接科學分野와의 協同研究도 수행할 것이므로 韓國知的所有權學會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學會를 活性化하고 새로운 氣風을 振作한다는 뜻에서 會長의 任期를 2年 單任制로 한 것도 특기할만한 점이라고 하겠다. (3 面に 會則 참조)

회 장 : 宋相現 (서울법대교수)

부 회 장 : 張秀吉 (변호사)

金明信 (변리사)

李基秀 (고대법대교수)

鄭鎮勝 (KDI 연구위원)

감 사 : 崔勝民 (변호사)

총 무 : 李廷勳 (변호사)

연구이사 : 康榮洙 (변리사)

홍보이사 : 金容煥 (변호사)

재무이사 : 徐弘錫 (KIET 특허정보실장)

특허연구분과위원장 : 李基秀 (고대법대교수)

상표·의장연구분과위원장 : 康榮洙 (변리사)

저작권연구분과위원장 : 朴元淳 (변호사)

판례연구분과위원장 : 梁承泰 (서울고법판사)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張秀吉 (변호사)

제도연구분과위원장 : 鄭鎮勝 (KDI 연구위원)

이사 : 金湜植 (판사), 梁承泰 (판사), 宋永植

(변호사), 李廷玟 (교수), 高光夏 (변호사),

金平祐 (변호사), 張一男 (교수),

尹東烈 (변리사), 李永弼 (변리사), 金洞

玄 (변호사), 徐弘錫 (KIET), 梁承斗

(교수), 金文煥 (교수), 朴元淳 (변호사)

사)